

고객 대기시간 줄인다 ‘미리작성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고객 체감 대기시간 절감과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KB미리작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KB미리작성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영업점 내점 고객이 대기시간 동안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 정보를 객장에 설치된 태블릿PC를 통해 미리 작성하는 서비스다. 작성 후 번호표 호출 시 미리 작성한 내용이 디지털 창구에 자동 반영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창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입금, 출금, 환전, 통장재발행, 비밀번호변경, 거래내역조회, 자동이체 등록·해제 등 총 9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서울지역 10개 지점 등 총 25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초에는 175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 구성과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집값 참사 책임 은행에?... 금감원, “대출 더 조여라”

대출창구 막으니 제2금융 ‘풍선 효과’
저축銀 중금리잔액 8조, 가계대출 29조
생명보험사 담보대출 9월 48조 육박
금융권 “시장 인위적 통제할 수 없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임·직원들을 불러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막지는 못했다. 업계 안팎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의 임원들과 함께 진행한 ‘가계대출 관리 동향 및 점검’ 화상 회의에서 은행들의 관리 소홀을 질책하고, 개별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특정 은행을 지목해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대출량이 급증했던 지난 10월 이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관리 지침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의 문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수요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한달 간 늘어난 가계대출 총액은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나온 직후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총 982조1,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13조6,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최후 수단인 신용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7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의 호소에 은행들은 이례적으로 대출 창구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앞서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축소했음에도 몰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가 1년 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13일 저축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시장경제DB

행업계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현재 26개로 이들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조원에서 최근 8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금리대출은 가중평균 금리가 연 16.5% 이하이고 최고금리가 연 20% 미만인 반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공급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최근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으로 중금리대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역시 기록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9조

5,9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267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외에도 국내 생명보험사 24사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9월 48조1,865억원으로 1월에 비해 11.3% 증가했고,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29조5,913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8,267억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당국의 호통이 있자 업계 안팎에선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풍선효과로 인한 ‘불똥’이 은행권으로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 집 장만과 투자수익을 열망하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2금융권까지 조였다면 대부분 업체 등이 수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2금융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용처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 반드시 부동산 정책에 의한 풍선효과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상당 부분 증권가 등으로 흘러갔을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정권發 주택亂... 11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은행 가계대출 전월比 13조6444억원 증가
주택·생활자금 수요 지속... 서민은 곱소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대란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382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6,444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무려 7조원이 늘어났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 8월 11조7,000억원보다도 2조원 정도 많다.

먼저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부문이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기타대출 부문 증가액 역시 속보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주택담보대출도 6조2,000억원으로 9월(6조7,000억원)과 10월(6조8,000억원)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기존에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과

주택 매매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만18,000호로 10월 5만1,000호에 비해 1만7,000호 증가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2조3,000억원 확대됐다.

그야말로 주택대란이다. 현재 서민들은 전세난(亂)에서 옮겨 붙은 월세난(亂)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1.06%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상승률로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 월세지수가 1% 이상 급등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9월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를 얻지 못한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변청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시장경제DB

각종 부양책에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기업대출 잔액(982조원)도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대출은 3,000억원 감소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이 7조원이나 늘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에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역대 11월 증가액 기준으로 속보 작성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윤육자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연말연초에 상여금이 지급되고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생활자금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금융쫄, “주가 상승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관과 최대주주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대응단을 구성하고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출범하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종목을 65개 추가해 총 162개로 늘렸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여기에 유사투자 자문업자 263개를 점검하고 무인가·무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지난 9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과 취약분야 점검 과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17년 Print & Publishing Lions

Bronze Lion Campaign

Title: Businessman
Client: Pronto
Agency: RAY PRODUCTIONS PARIS
Product: Pronto Cafe

비즈니스맨
프론토
레이 프로덕션 파리
프론토 커피

Copy: Ready in an instant

커피 한잔마셨을 뿐인데 순식간에
비즈니스맨으로 변신성공.